Temple&Brand

자체 브랜드 개발로 국민 핫플레이스 등극

사찰 브랜딩 성공사례
"우린 이렇게 했어요"

2. 지리산 화엄사

지리산 화엄사(주지 덕문 스님)는 요즘 불자뿐 아니라 전 국민에게 핫하다.

지난해 12월 한국관광공사가 집계한 관광데이터랩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화엄사 방문객이 21만3000여 명에 달한다. 전남을 찾은 관광객들 중 여수 케이블카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찾은 곳이다.

조용했던 절이 시끌벅적해진 것은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겪으면서다.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힐링 시간을 만들어 주고 싶었다는 주지 덕문 스님은 "절은 모든 사람을 위한 곳이 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런저런 변화를 시도했다. 먼저 홍보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방송인 마리엘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홍매화 사진찍기 축제를 시작으로 화엄문화제, 모기장영화음악회, 요가 대회, 굿즈 제작에 이어 야간개방까지 보통 절에서는 보기 힘든 '파격변신'이 쉴새 없이 일어나면서 방문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6070세대에게는 추억의 소풍장소로, MZ세대에게는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것.


화엄사가 2023년 실시한 홍매화 사진찍기 콘테스트 최우수 수상작 '안개가 휘도는 산사' (김진관 作).

다양한 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자 화엄사는 별도의 상표등록도 마쳤다. 사찰도 브랜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어 화엄사 하면 떠올릴 수 있는 자체상품 개발에 나섰다. 비건 햄버거인 '화엄버거'와 사기업과의 콜라보 제품인 '화엄사 자일리톨 스톤'을 연이어 출시했다. 또 버려지는 커피 원두 마대를 활용해 가방과 컵 홀더 등 친환경 자체 굿즈를 제작, 화엄사만의 브랜드 상품을 만들어내는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였다.

각종 언론매체에 화엄사 브랜드가 노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화엄사의 브랜드 가치는 물론, 지역사회로부터 신뢰감도 높아졌다. 2022년 한 해 동안 화엄사로 인해 지역사회에 46억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생겼다는 평가다.

덕문 스님은 "사찰이 불교의 가치를 유지 지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젠 사찰이 스님들만의 독점적 공간이 아닌 국민이 함께 향유하는 공간으로 변화해야 할 때"라면서 "우리가 변해야 불교에 대한 호감과 이미지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엄사만의 브랜드 상품으로 국민들에게 신뢰와 건강을 나눠드리고자 한다"면서 "전문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완성도 높은 자체 브랜드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K-콘텐츠의 한축으로서 글로벌 문화 이미지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화엄사가 자체 브랜드로 개발한 비건 햄버거 '화엄버거'. 직영 전문점 및 밀키트 형태로 판매될 예정이다.


화엄사 홍보대사 마리엘씨가 기업과 콜라보로 탄생한 '화엄사 자일리톨 스톤'을 소개하고 있다.

치유·상생·문화 공간으로 산중 브랜드 견고히

3. 오대산 월정사

불교계에서 '출가학교'만큼 성공적인 브랜드가 또 있을까?

정념 스님 월정사 주지 취임 첫 해인 2004년, 1개월 과정으로 처음 신설된 '출가학교'는 불교계뿐 아니라 세상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지금까지 35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거쳐 갔고 이 가운데 출가자도 550여 명이나 배출됐다. 출가문화와 출자가 양성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이제는 고유명사처럼 되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출가학교'하면 오대산 월정사를 떠올릴 만큼 그 정체성이 확고하다.

월정사의 산중 브랜드는 명상, 치유, 문화에 포커스가 있다. 일명 '명상 치유 문화의 성지(聖地)'다. 오대산국립공원 초입에서부터 친자연적인 감성공간들이 늘어서 있다. 전나무 숲길을 따라 왼편에는 자연명상마을 옴뷔가, 오른편에는 왕조실록의궤박물관과 월정사성보박물관이 들어서 있다. 명상마을과 박물관마을이 공존하는 역사문화의 성역을 구축한 것이다.


◀불교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브랜드로 평가받는 '출가학교'는 고유명사처럼 활용되며 그 정체성을 확고히 했다.

▶월정사는 오대산 전나무 숲길을 중심으로 명상, 치유, 문화를 아우르는 산중 브랜드를 견고히 하고 있다.

월정사가 '명상 치유 문화의 성지'로 브랜딩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배경에는 2018년 개관한 자연명상마을 옴뷔(OMV, Odasan Meditation Village)가 있다. 현대인에게 종교를 초월한 마음 쉼터를 제공하고자 개관한 옴뷔는 명상을 하는 수행공간으로서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각 방사가 자연감성 속 현대 감각의 세련된 공간으로 꾸며졌으며 전통과 현대의 자연이 어우러져 오롯이 힐링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다.

최근 월정사는 110년 만에 귀향한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의 브랜드화, 관광자원화를 위해 평창군과 다양한 논의에 들어갔다. '명상 치유 문화의 성지'를 타이틀로 미래 천년을 지속할 새로운 브랜드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임은호 기자

2024 갑진년 부처님 법 전합시다

30 창간 30주년 1994~202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본사 智異山大華嚴寺

문 장 은산 종국
회 주 송천 종열
주 지 초암 덕문

신도회&사부대중일동

주소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539
전화 종무소 061)783-7600 기도접수처 061)782-0011 www.hwaeomsa.com

